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1장 죄 죽이기의 근거 본문: 로마서 8장 13절

『죄 죽이기』 제1장, 인쇄 33~41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로마서 8:13 한 구절을 책 전체의 토대로 세우고, 그 안에서 다섯 요소를 찾아낸다. 의무(몸의 행실을 죽이라), 대상(너희), 약속(살리라), 수단(성령), 조건(~한다면)이다. 먼저 “~한다면”은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 죄 죽이기와 생명 사이에 확실한 연결이 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이 의무는 신자에게만 주어지며, 오직 성령으로만 수행된다고 밝힌다. 이어서 '몸', '몸의 행실', '죽인다'는 말을 하나씩 풀어, 죄의 뿌리를 평생 꺾어 가는 일이 무엇인지 정의한다. 끝으로 약속된 '생명'에는 내세의 영생과 함께, 지금 누리는 영적 삶의 힘과 위로도 포함된다고 결론짓는다.

📜 절별 정리

📜 1. 강론의 목적과 본문의 다섯 요소

오웬은 이 강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 신자가 죄 죽이기를 실제로 해 나가도록 돕는 지침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죄 죽이기(mortification)는 내 안에 남은 죄의 힘을 꺾어 죽여 가는 신자의 평생 싸움을 말한다. 오웬은 그 토대로 로마서 8:13을 고른다. 이 구절의 앞뒤 흐름도 짚는다. 바울은 로마서 8:1-3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복된 자리를 다시 정리한다. 그 위에서 신자의 거룩함과 위로를 다룬다. 로마서 8:13은 거룩함과 죄라는 상반된 두 길과 그 결과를 나란히 보여 준다. 오웬은 전반절의 '육신대로 산다', '죽는다'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고 말한다. 후반절을 설명하는 데 필요할 때만

1. 목적: 죄 죽이기의 실제 지침 제시
2. 토대 구절: 로마서 8:13
3. 순서: 칭의가 먼저, 거룩함은 그 위에
4. 다섯 요소: 의무·대상·약속·수단·조건
5. 전반절은 후반절 설명에 필요할 때만

> **로마서 8:13**
> 강론 전체의 토대가 되는 본문
>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로마서 8:1-3**
> 이신칭의를 먼저 요약한 배경. 거룩함은 칭의 위에 세워진다
>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 2. 조건문의 의미: "~한다면"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한 연결

본문은 헬라어 '에이 데'(하지만 ~한다면)로 시작한다. 오웬은 조건문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뜻을 구분한다. 첫째 뜻은 그 조건을 채워야만 결과가 생기므로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오웬은 이 뜻을 거부한다. 같은 사람들에게 로마서 8:1이 이미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둘째 뜻은 조건과 결과 사이에 확실한 연결이 있다는 것이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라고 환자에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다. 오웬은 이것이 본문의 뜻이라고 본다. 다만 그 연결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수단과 목적의 관계라고 정밀하게 말한다. 영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그것은 모순이다. 수단은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값없이 주기로 하신 목적에 종속된다. 이 확실한 연결이 신자가 죄 죽이기를 하게 만드는 첫째 동기다.

1. 조건문의 두 뜻: 불확실성 / 확실한 연결
2. 본문은 '확실한 연결' 쪽이다
3. 근거: 로마서 8:1 “정죄함이 없다”
4. 원인-결과 아닌 수단-목적 관계
5. 영생은 공로가 아니라 선물이다

> **로마서 8:1**
> 신자에게 정죄가 없으므로 조건문이 구원의 불확실성을 뜻할 수 없다
>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로마서 6:23**
> 영생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죄 죽이기는 원인이 아니라 수단이다
>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3. 이 의무가 주어진 대상: 신자들

'너희'는 헬라어 동사 '타나투테'(너희가 죽이면)의 인칭어미 속에 들어 있다. 오웬은 이 '너희'가 신자들이라고 못박는다.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된 사람(로마서 8:1),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로마서 8:9),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로마서 8:10-11)이다. 그는 반대 입장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 의무를 아무에게나 마구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과 자기의가 맺는 열매라는 것이다. 자기의(自己義)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는 태도를 말한다. 그런 강요는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복음은 모르는 사람들이 붙드는 방식이다. 이 비판에서 오웬은 강론 전체의 첫째 명제를 끌어낸다. 신자는 정죄하는 죄의 권세에서는 확실히 풀려났다. 그래도 자기 안에 남은 죄의 권세를 죽이는 일을 평생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2. 정죄에서는 이미 해방되었다
3. 그래도 내재하는 죄와는 평생 싸운다
4. 모두에게 강요하면 자기의의 열매
5. 열심은 있으나 복음에 무지한 방식

로마서 8:9

'너희'는 영에 있는 사람, 곧 신자다

>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10-11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10:3-4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을 비판한다

>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요한복음 15:5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신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의 한계를 보여 준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죄 죽이기를 가능하게 하는 일차적이고 실제적인 원인은 성령이시다. 오웬은 로마서 8장 안에서 이 '영'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로마서 8:11)이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로마서 8:9)이시고, 양자의 영(로마서 8:15)이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로마서 8:26)이시다. 성령의 내주란 성령께서 신자 안에 실제로 머물러 계시며 일하신다는 뜻이다. 오웬은 이렇게 단언한다. 성령 없이 죄를 죽이려는 모든 방법은 헛되고, 다른 도움들은 결국 절망만 남긴다. 사람들은 늘 다른 원리와 방법으로 죄를 죽이려 해 왔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죄를 죽이려 하면 그 끝은 자기의다. 오웬은 이것이 세상 모든 거짓 종교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강론의 둘째 원리다.

1. 죄 죽이기의 주된 원인은 성령이시다
2.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3. 성령 없는 방법은 헛되고 절망뿐
4.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의로 끝난다
5. 자기의가 거짓 종교의 본질이다

> **로마서 8:9**
>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신다
>
>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로마서 8:11**
>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 죽이는 힘도 그분께 있다
>
>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 **로마서 8:14-15**
> 하나님의 영이자 양자의 영이시다. 아들 됨과 연결된 성령이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26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9:30-32

행위로 의를 얻으려다 걸려 넘어진 실례. 성령 아닌 방법의 실패를 보여 준다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

📜 5. "몸"의 의미: 부패한 본성

오웬은 의무 자체를 세 질문으로 나눈다. 몸은 무엇인가, 몸의 행실은 무엇인가, 죽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후반절의 '몸'은 전반절의 '육신'과 같은 뜻이라고 본다. 바울이 앞에서 계속 '육신'이라는 말로 논의해 왔고, 본문 전후에서 성령과 육신을 맞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은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곧 내재하는 죄를 가리킨다.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는 거듭난 뒤에도 신자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성향을 말한다. 바울이 '몸'이라는 말을 쓴 까닭도 설명한다. 몸이 부패한 본성의 본거지이자 도구이고, 그 지체들이 불의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관된 것으로 대신 부르는 환유법이다. 오웬은 '몸'이 로마서 6:6의 '옛 사람', '죄의 몸'과 같은 뜻이라고 덧붙인다. 또는 부분으로 전체를 부르는 제유법으로 부패한

인간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고 본다. 즉 몸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니다. 몸을 통해 작동하는 부패한 본성을 겨냥한 말이다.

1. '몸' = 전반절의 '육신'
2. 부패한 본성, 곧 내재하는 죄
3. 몸은 그 본성의 본거지이자 도구
4. '옛 사람', '죄의 몸'과 같은 뜻
5. 몸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다

> **로마서 6:19**
> 지체가 불의의 종이 된다. 몸이 죄의 도구로 쓰인다
>
>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 **로마서 6:6**
> '옛 사람', '죄의 몸'과 같은 뜻임을 보여 준다
>
>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6. "몸의 행실"의 의미: 행위만이 아니라 그 뿌리

'행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락세이스'는 주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뜻한다. 갈라디아서 5:19의 '육체의 일'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오웬은 이 말이 실제로는 그 행위의 안쪽 원인, 곧 정욕을 주로 가리킨다고 말한다. 정욕(lust)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속 죄악된 욕망을 말한다. 근거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원리다. 열매를 없애려면 뿌리를 쳐야 한다. 오웬은 정욕을 '행실'이라 부르는 이유도 설명한다. 모든 죄악된 욕망은 행위를 향해 움직이고, 아직 마음속에만 있어도 온전한 죄를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그는 묵맹도 짓는다.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

결과, 곧 그 파괴성을 다룬다. 같은 뜻의 표현으로 로마서 8:6의 '육신의 생각', 갈라디아서 5:24의 '정욕과 탐심', 로마서 8:10의 '죄로 죽은 몸'을 든다.

1. 행실 = 겉 행위 + 그 안쪽 원인
2. 열매를 없애려면 뿌리를 쳐야 한다
3. 정욕은 늘 행위를 향해 움직인다
4. 마음속 죄도 온전한 죄를 노린다
5. '육신의 생각', '정욕과 탐심'과 같다

> **갈라디아서 5:19**
> '육체의 일', 곧 드러난 행위를 열거한다
>
>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 **마태복음 3:10**
>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행위가 아니라 원인을 쳐야 한다
>
>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 **로마서 8:6**
> '육신의 생각'이 '몸의 행실'과 같은 뜻임을 보여 준다
>
>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 **갈라디아서 5:24**
> '정욕과 탐심'은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 근원이다
>
>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로마서 8:10**
> '죄로 죽은 몸'에서 '몸'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 7. "죽인다"는 것의 의미: 죄의 생명력을 평생 꺾는 일

'죽인다'는 살아 있는 것을 죽게 하는 데서 가져온 은유다. 무언가를 죽인다는 것은 그 힘과 활기의 원리를 없애, 더는 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내재하는 죄를 지혜와 기술과 약삭빠름과 힘을 가진 살아 있는 사람에 비유해 '옛 사람'이라 부른다. 바울은 바로 이 사람을 처단하라고 명령한다. 곧 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권세와 생명력을 성령으로 제거하라는 것이다. 오웬은 이런 반문도 염두에 둔다.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가? 그는 그렇다고 답한다.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철저히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공로이자 보여 주신 모범이다. 또 우리가 거듭날 때 죄를 거스르는 새 원리가 심어져 우리는 실제로 처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하지만 그 일 전체는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온전함을 향해 간다. 그래서 죄 죽이기는 신자가 쉬지 않고 힘써야 할 의무다.

1. 죽인다 = 힘과 활동 원리를 없앰
2. 내재하는 죄는 살아 있는 '옛 사람'
3.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죽었다
4. 거듭날 때 실제로 처음 함께 죽는다
5. 그러나 평생 점진적으로 완성된다

> **로마서 6:6**
>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음의 결정적 근거다
>
>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로마서 6:8**
>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5:17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른다. 신자 안에 죄를 파괴하는 원리가 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3-5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거듭남에서 실제로 처음 죽는다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 8. 약속: "살리라" — 영생과 지금의 영적 활력

이 의무에 붙은 약속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전반절이 경고한 죽음과 정반대다. 바울은 같은 원리를 갈라디아서 6:8에서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 곧 하나님께 멸망을 거둔다고 표현한다. 오웬은 이 생명이 영생만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도 포함한다. 생명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활력까지 뜻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데살로니가전서 3:8을 든다.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는 말씀이다. 오웬은 이것을 현세에는 선하고 평안한 영적 삶으로, 내세에는 영생으로 읽는다. 첫째 동기가 '죄 죽이기와 영생의 확실한 연결'이었다면, 둘째 동기는 이것이다. 우리 영적 삶의 활력과 능력과 위로가 죄 죽이기에 달려 있다.

1. 약속된 생명은 전반절의 죽음과 반대
2. 내세의 영생 + 지금의 영적 생명
3. 생명의 기쁨, 위로, 활력까지 포함

5. 둘째 동기: 지금의 영적 활력과 위로

> **갈라디아서 6:8**
> 육체를 위해 심으면 멸망을 거둔다. '살리라'의 반대편이다
>
>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 **데살로니가전서 3:8**
> '이제는 살리라'. 현세의 영적 기쁨과 위로도 생명이다
>
>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생명력과 능력과 위로는 육신의 행실들을 죽이는 것에 달려 있다.”

<details>
<summary>⚖️ 오해와 반론</summary>
</details>

<details open>
<summary>📖 용어</summary>

죄 죽이기(mortification)
성령의 힘으로 내 안에 남은 죄의 생명력과 권세를 평생 꺾어 가는 신자의 의무.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뒤에도 신자 안에 남아 계속 죄를 낳으려 하는 부패한 본성.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자기의(自己義)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는 태도. 오웬은 이것을 거짓 종교의
</details>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의 영이 신자 안에 실제로 머물러 계시며 살리고 도우시는 것.

육신 / 몸

이 본문에서는 신체가 아니라, 몸을 통해 작동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킨다.

육신(몸)의 행실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위와 그 뿌리인 마음속 욕망을 함께 가리키는 말.

정욕(lust)

하나님을 거스르며 늘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속 죄악된 욕망.

옛 사람

내재하는 죄를 꾀와 힘을 가진 살아 있는 사람에 빗댄 성경의 표현.

수단과 목적

꼭 필요한 길이지만 결과를 '만들어 내는' 원인은 아닌 관계. 죄 죽이기와 영생의 관계가 이렇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죄 죽이기의 토대는 로마서 8:13이다. 그리고 그 의무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신자에게 주어진다.
- 죄 죽이기와 생명은 확실히 연결되어 있지만,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수단과 목적의 관계다. 영생은 선물이다.
- 이 일의 주된 원인은 성령이시다. 자기 힘으로 하는 죄 죽이기는 자기의로 끝난다.

- 약속된 생명은 내세의 영생과 함께 지금 누리는 영적 활력과 위로까지 포함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1편 ·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 죄와 싸워야 해? · 오웬과 로마서 8장 13절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